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6월 미 소매 판매 0.2% 증가… 소비 회복세 지속
- CNBC: 6월 식료품 판매량은 1.8% 감소
- Reuters: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20.8만 건으로 감소… 고용 안정세
- WSJ: 미 장기 실업률 27.3%…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

[중동 전쟁]
- Bloomberg: 미 이란 갈등 심화… 호르무즈 통행 급감

[오일]
- Bloomberg: 미 경유도 5달러 돌파…다시 불붙은 인플레 우려
- Bloomberg: 중동 촉발 고유가로 휴가길이 막힌다

[트럼프 관세]
- YahooFinance: 트럼프 정부, 브라질에 25% 관세 부과…관세 전쟁 재점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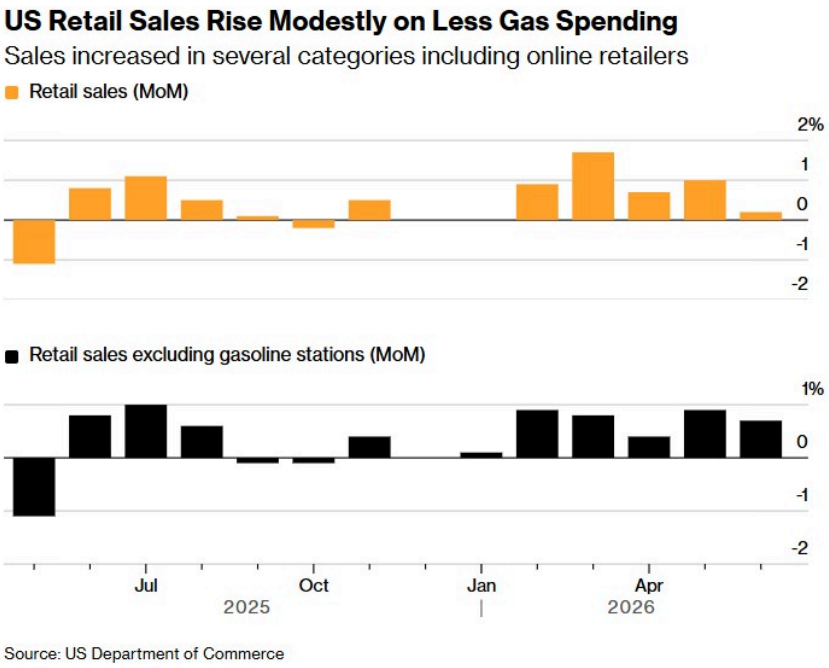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WSJ: AI 온라인 추적으로 당신의 경력도 흔들린다
- Bloomberg: 유나이티드헬스, 실적 회복세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Retail Sales Rise Modestly as Consumers Spend Less on Gas
6월 미 소매 판매 0.2% 증가… 소비 회복세 지속

- 지난 6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.2%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. 지난 5월에는 1.0% 증가로 상향 수정되었으며 5월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다.
- 전체 13개 소매 업종 중 7개 분야가 상승했다. 특히 온라인소매업 매출이 1.9% 급증해 약 1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는데, 아마존 '프라임 데이'가 성장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.
- 이번 발표는 여름철을 앞두고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준다.

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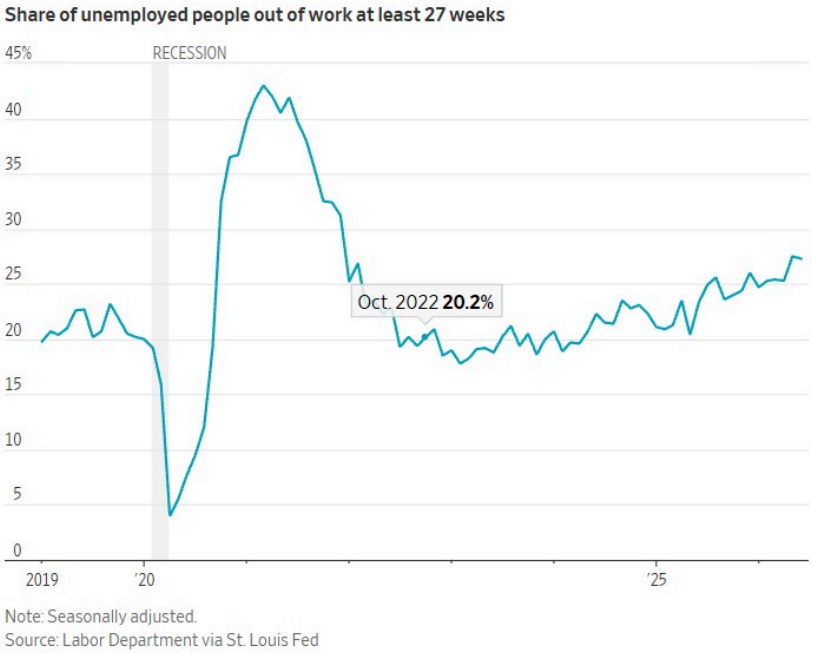
CNBC: U.S. grocery slowdown deepens as shoppers buy fewer items, raising pressure on food companies
6월 식료품 판매량은 1.8% 감소

- 글로벌 컨설팅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, 지난 6월 미국의 식료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.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치솟는 식품 인플레이션 부담에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인 결과다.
- 현재 식료품 물가는 2019년 대비 약 33% 급등한 상태다. 이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구매 수량을 줄이거나, 더 저렴한 브랜드로 갈아타고, 할인 상품을 찾아 나서는 등 극도로 지출을 아끼고 있다.
- 이에 따라 펩시코, 월마트, 크로거 등 주요 유통·식품 기업들은 판촉 행사와 가격 인하 등 가성비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.

기사

Reuters: US weekly jobless claims fall; labor market remains stable
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20.8만 건으로 감소… 고용 안정세

-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며 노동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.
- 연방 노동부는 7월 11일 마감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8천건 줄어든 20만 8천건(계절 조정치)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
- 전문가들은 현재 고용 시장을 '채용도 해고도 느린(slow hire, slow fire)' 안정적인 상태로 분석하고 있다.



기사

WSJ: Two Million Workers Are Locked Out of an Improving Job Market
미 장기 실업률 27.3%…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

- 지난 6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미국 실업자 비율이 27.3%에 달하며, 2021년 말 이후 최고치 수준에 머물렀다.
-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, 이번 장기 실업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과 한창 일할 나이인 핵심 연령층(prime working years)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.
-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미온적인 채용 기조가 장기 실업자 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며, 이로 인해 저축 고갈이나 더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감수해야 하는 구직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.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Iran-US Hostilities Worsen as Hormuz Shipping Traffic Falls
미 이란 갈등 심화… 호르무즈 통행 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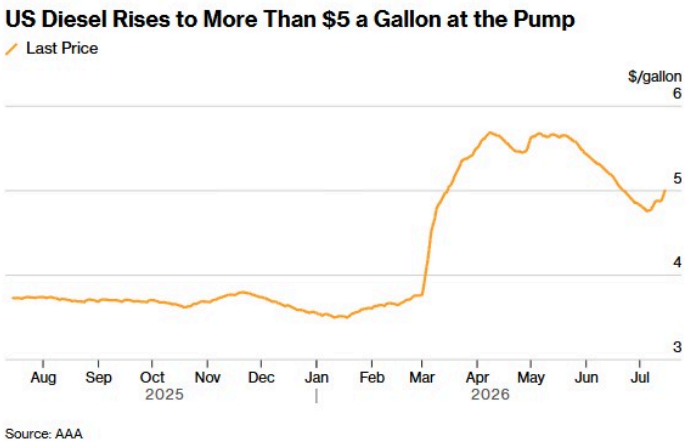
-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며 핵심 수출 터미널 인근의 유조선을 타격했다. 이로 인해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이 급감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.
-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을 겨냥한 이번 타격은 미군이 이란 군사기지 공격과 더불어 해상 작전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있음을 시사한다.
- 이에 이란은 쿠웨이트와 요르단 내 미군 기지에 보복 포격을 가했으며, 쿠웨이트 군 당국은 방공망 가동에 따른 폭발 위험을 경고했다.

기사

[오일]

Bloomberg: US Drivers Are Again Paying More Than $5 a Gallon for Diesel
미 경유도 5달러 돌파…다시 불붙은 인플레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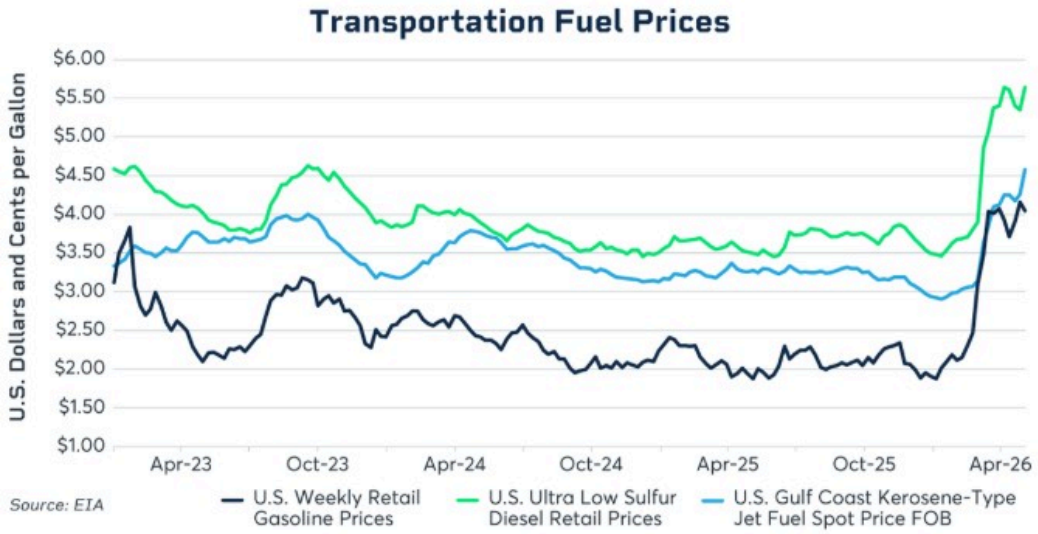
- 미국 디젤(경유) 소비자 가격이 다시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다. 중동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쟁 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.
- 미·이란 갈등으로 이번 주 미국과 유럽의 오일 등 에너지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. 러시아가 경유 수출을 제한하는 등 도매가 상승분이 주유소 판매가에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이다.
-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.



기사

Bloomberg: Why Geopolitical Tensions Are Driving Up Summer Travel Costs
중동 촉발 고유가로 휴가길이 막힌다

-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공급 마비로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며 올여름 휴가철 교통비가 직격탄을 맞았다.
- 이에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.63달러를 넘어섰고, 미 정부는 급히 에탄올 15% 혼합유(E15) 판매를 허용했다.
- 정제유 공급난도 심각하다.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2백 달러를 돌파했다.
- 이에 대형 항공사들은 감편에 나섰고 스피릿 항공은 파산했으며,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50달러 이상 추가됐다.



기사

[트럼프 관세]

YahooFinance: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s 25% tariffs on Brazil ahead of a global rollout expected within weeks
트럼프 정부, 브라질에 25% 관세 부과…관세 전쟁 재점화

-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에 25%의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관세 조치를 재개했다. 수 주 내에 8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.
- 브라질산 관세는 7월 22일부터 발효된다. 다만 원유·가스, 소고기, 커피, 오렌지 등 주요 품목은 제외됐다.
- 약 1백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예외 품목 목록은 관세 부과 시 "미 국내 공급 부족으로 경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"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AI Knows What You Did Online. Now Your Employer Does, Too.
AI 온라인 추적으로 당신의 경력도 흔들린다

- 기업들이 채용 전후로 직원의 인터넷 기록을 그 어느 때보다 깊게 파헤치고 있다. 특히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과거의 개인 디지털 기록이나 한 흔적까지 쉽게 추적당하는 시대가 되었다.
- 최근 성인용 유료 플랫폼이나 온라인 베팅 사이트 등이 인기를 끌면서 사용자들이 무심코 남긴 기록 가운데,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지원자의 성품과 조직 적합성을 샅샅이 검증하고 있다.
- 아주 오래전의 온라인 활동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된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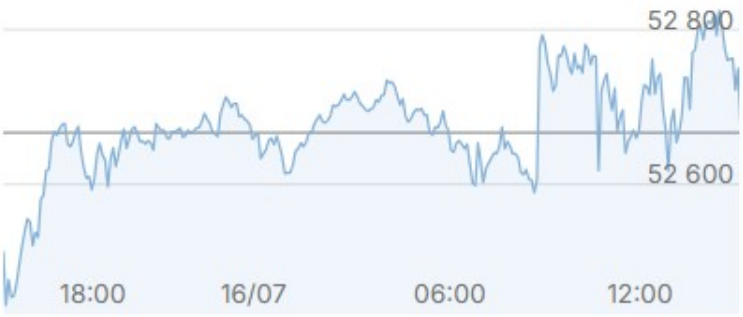
기사

Bloomberg: UnitedHealth Reports Quarterly Profit Above Wall Street Estimates
유나이티드헬스, 실적 회복세

-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순이익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를 입증했다.
- 올해 주당 조정순 이익(EPS) 전망치는 전망치 예상을 웃도는 19.50~20.00 달러로 상향됐다.
- 이 같은 실적 개선은 보험료 인상, 혜택 구조 조정, 가입자 수 조절을 통해 비용을 통제하고 보험 수익성을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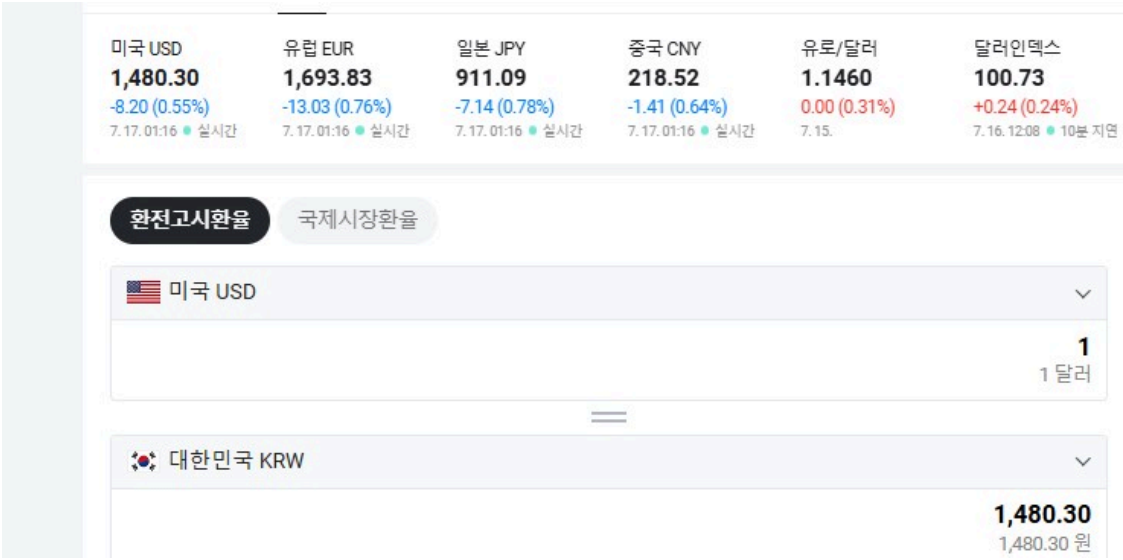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687.80	+29.3	+0.06%
US 500	7,548.10	-24.3	-0.32%
Dow Jones	52,686.49	+27.85	+0.05%
S&P 500	7,548.77	-23.63	-0.31%
Nasdaq	26,015.59	-253.64	-0.97%
S&P 500 VIX	16.35	+0.68	+4.34%
Dollar Index	100.54	+0.266	+0.27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-4/32	5.104	0.022
10-Year Note	4.375	-2/32	4.579	0.024
7-Year Note	4.25	-24/32	4.429	0.030
5-Year Note	4.125	-1/32	4.300	0.033
3-Year Note	4.125	-1/32	4.223	0.036
2-Year Note	4.125	-1/32	4.179	0.036
1-Year Bill	0	1/32	3.991	0.021
6-Month Bill	0	0/32	3.907	0.010
3-Month Bill	0	0/32	3.786	-0.001
1-Month Bill	0	0/32	3.700	0.000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